https://doi.org/10.21186/IPR.2024.9.4.135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김성환*, 김진원**, 안수인***, 이창식****
안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청운대학교 청소년상담교육 강사**,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Self-Integrity in Literacy Education Learners: Serial Double Mediating Effects of Successful Aging and Hope

Seong Hwan Kim*, Jin Won Kim, Su In An***, Chang Seek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Studies and Social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epartmen of Youth Counseling Education, Chungwoon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Beauty Health Design, Open Cyber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이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지역의 일반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고,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용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이중 매개효과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고립감, 성공적 노화, 희망, 자아통합감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희망과 자아통합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둘째, 성공적 노화와 희망은 문해교육에 참여한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의 관계에서 직렬 이중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해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문해교육 학습자, 사회적 고립감, 자아통합감, 성공적 노화, 희망, 이중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whether successful aging and hope play a du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elf-integrity among learners participating in literacy educa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enhanceself-integrity. The subjects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learners participating in general literacy education and literacy education courses recognized for academic achievement in the Chungnam provinc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 Win. ver. 25.0 and SPSS PROCESS macro ver. 4.2.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dual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ocial isolation, successful aging, hope, and self-integrity, with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ope and ego integrity. Second, successful aging and hope ser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elf-integrity among learners participating in literacy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can be used as a new model to enhance self-integrity among learners participating in literacy education.

Key Words : Social isolation, Successful aging, Hope, Self-integrity, Dual mediation effect, Literacy learners

Received 20 Sep 2024, Revised 03 Oct 2024
Accepted 11 Oct 2024
Corresponding Author: Chang Seek Lee
(Hanseo University)
Email: lee1246@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965년 11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는 '세계 문해의 날'을 선포하였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서 문맹 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을 제시하였다[1].

문해교육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기본이며, 모든 교육의 기초이다. 평생교육 백서에서 문해교육은 사회적 통합실현과 국민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문해교육을 평생교육법에 포함하여 평생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론적 토대, 교육방법이 제시되었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에 필요한 바탕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0세 시대와 함께 인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층의 교육 욕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비문해로 인해 겪은 삶의 불편한 경험은 비문해자들에게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자아를 형성한다[3]. 또한 성인후기 비문해 여성들은 문해교육을 통해 글자를 배움으로써 배우지 못해 갖게 된 한을 해소하고 부정적 자아에서 긍정적 자아로 변화시키는 기회를 갖게 한다. 즉, 글자를 알게 함으로써 사회 소통의 기회를 얻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다[4].

Erikson[5]은 노년기 심리사회적 발달의 긍정적 개념으로 자아통합감을 제시하였고,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달성한 사람은 과거 생활유형을 수용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죽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자아통합감이 결여된 사람은 신체적 쇠퇴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연결될 수 있다. 노년기에 경험한 행복감과 삶의 만족은 죽음을 수용할 수 있으며, 무력감, 소외감, 우울감, 외로움 등 노화에 관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을 의미하였다[6].

문해교육 참여 노인에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7], 학력인정과정 문해교육에 관한 연구[1], 생활 관계와 학습만족도에 관한 연구[8], 문해학습과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9]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변인간 관련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며, 100세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교육적 욕구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20]를 재구성하여 노인들의 기초학습인 문해교육 참여자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성공적 노화와 희망을 매개로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사회적 고립감은 고독감의 하위 요소로, 인간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용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0].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서적 고립은 교류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11]. 사회적 고립감은 자아개념 저하, 우울감, 심리적 불안감 등을 유발하며[12], 노인 빈곤은 사회적 고립감을 가속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1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적 지지, 사회활동, 고독감에 대한 만족감이 자아통합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4], 자아통합감이 건강상태, 사회활동, 고독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15]. 고독감은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감 역시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이중 매개역할

2.2.1 성공적 노화의 매개역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노화 되어가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자는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고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는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화 과정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생활 습관과 개인적 선택을 통해 장애나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고 삶을 유지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끌 수 있다[16]. 즉, 개인적 노력과 선택을 통해 일반적인 노화를 성공적 노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17].

개인적 노력과 선택은 노년기의 원만한 대인관계의 힘과 주체적인 삶의 참여, 잠재력 계발의 원천과 자아통합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 노화로 정의한다[18].

유사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적 퇴화와 보수적 성향은 고립감의 원인이 되며[19], 경제적 부담 증가는 사회활동 저하로 이어져 정서적 고립감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2]. 또한,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은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통합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매개가 필요하다[20].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노인은 성공적 노화가 낮아지고 그 결과 자아통합감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2.2 희망의 매개역할

희망은 목표달성을 위한 긍정적 동기와 의지를 의미하며, 개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21]. 희망은 목표달성에 근거한 긍정적 동기와 목표를 직접 추구하려는 의지(will-power)를 의미한다[22]. 또한, 긍정적 결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현상이다[23].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 해결을 위한 대처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24].

희망이 미치는 영역은 개인 심리적 안녕과 연관된 정서중심 영역과 성취목표 관련 과업중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희망은 정서중심 영역에서 신체적 건강, 심리적응, 인간관계에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업중심 영역은 학업성취 및 운동수행 능력에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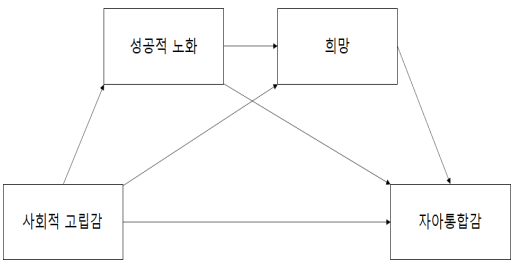
희망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정서 상태를 보이며, 목표 달성에 높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도전정신을 가진다[26]. 반면, 희망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보인다[27].

암환자와 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희망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자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희망이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여 매개변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희망이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문해교육 참여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9]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6번 모델을 적용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감, 자아통합감, 성공적 노화 및 희망의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충청남도 지역의 일반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초등·중학)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는 273명이었으나 결측문항이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260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96.5%, 남성이 3.5%로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80세 이상 학습자가 5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5~79세 24.2%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는 혼자 산다가 5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끼리만 산다가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중 54.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황도 중 73.1%로 가장 많았다. 교육 참여횟수는

주 2회 6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3회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기간은 1~2년 27.4%, 3~4년 26.9% 순 이였으며, 참여동기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50.0%로 가장 많았다.

3.3 조사도구

3.3.1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의 연구도구는 오현숙[3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울하여 잘 지낼 수 없다'등 총 6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Scale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20이었다.

3.3.2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의 연구도구는 김지현[31]이 사용한 EI(Ego-Integrity)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만족 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 못다 한 일이 많아 열심히 살 것이다'등 총 14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Scale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66이었다.

3.3.3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의 연구도구는 박은희[3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나의 지나온 삶은 보람되었다' 등 총 19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Scale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91이었다.

3.3.4 희망

희망의 연구도구는 최유희·이희경·이동귀[3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열정적으로 나의 목표를 추구 한다' 등 총 8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Scale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1이었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든 변수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감,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이중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번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변인 간 상관관계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 성공적 노화 및 희망의 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과 정도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 성공적 노화, 희망의 상관 정도와 평균, 표준편차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r=-.408$, $p<.01$), 성공적 노화($r=-.368$, $p<.01$), 희망($r=-.331$, $p<.01$)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통합감과 성공적 노화($r=.579$, $p<.01$), 희망($r=.600$, $p<.01$)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공적 노화와 희망($r=.537$, $p<.01$) 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인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의 전체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1.90이었고, 자아통합감은 평균 3.77, 성공적 노화는 평균 3.78, 희망은 평균 3.56이었다.

<표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1	2	3	4
1.사회적 고립감	1			
2.자아통합감	-.408**	1		
3.성공적 노화	-.368**	.579**	1	
4.희망	-.331**	.600**	.537**	1
M	1.90	3.77	3.78	3.56
SD	.674	.558	.563	.686

**p<.01

4.2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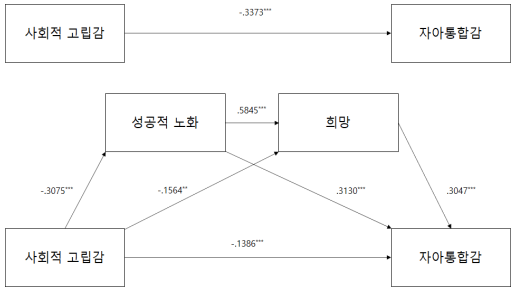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9]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 고립감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B=-.3075, p<.001), 희망에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B=-.1564, p<.01), 종속변인인 자아통합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1386, p<.001). 성공적 노화는 희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5845, p<.001), 자아통합감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3130, p<.001). 또 희망은 자아통합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3047, p<.001).

한편, 사회적 고립감에서 자아통합감 간 총 효과는 B=-.3373(p<.001)이었다가 매개변인인 성공적 노화와 자아통합감이 투입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에서 자아통합감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1386(p<.001)으로 감소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 노화는 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 희망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간접효과를 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bootstrap의 상한값과 하한값에 0이 존재하지 않아 3개의 간접효과가 모두 검증되었다.



[그림 2]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이중 매개효과 통계모형

<표 2>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매개변수모형 1 (DV: 성공적 노화)			매개변수모형 2 (DV: 희망)			종속변수모형 (DV: 자아통합감)		
		Coeffect	SE	t값	Coeffect	SE	t값	Coeffect	SE	t값
상수		4.3660	.0976	44.7247***	1.6493	.3148	5.2397***	1.7721	.2352	7.5366***
독립	사회적 고립감	-.3075	.0484	-6.3557***	-.1564	.0567	-2.7574**	-.1386	.0409	-3.3914***
매개1	성공적 노화				.5845	.0679	8.6135***	.3130	.0547	5.7225***
매개2	희망							.3047	.0443	6.8790***
모델 요약	R^2	.1354			.3088			.4757		
	F	40.3950***			57.4082***			77.4383***		

구분		Effect	SE	신뢰구간 LLCI*	신뢰구간 ULCI**
총효과		-.3373	.0470	-.4299	-.2446
직접효과		-.1386	.0409	-.2191	-.0581
총간접효과		-.1987	.0462	-.3006	-.1200
간접효과	사회적 고립감 → 성공적 노화 → 자아통합감	-.0963	.0415	-.1882	-.0280
	사회적 고립감 → 희망 → 자아통합감	-.0477	.0211	-.0890	-.0065
	사회적 고립감 → 성공적 노화 → 희망 → 자아통합감	-.0548	.0156	-.0894	-.0287

**p<.01, ***p<.001
*LLCI=부트스트랩 하한값
**ULCI=부트스트랩 상한값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 성공적 노화, 희망, 자아통합감의 상관관계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고립감은 성공적 노화, 희망 및 자아통합감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었고, 성공적 노화, 희망 및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6, 34].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통합감과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이 사회적 고립감을 낮추고, 자아통합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와 희망이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 문해교육 학습자들은 자아통합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적 노화와 희망을 매개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순정[12]과 김현주[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을 충남지역으로 제한하여 전국의 문해교육 학습자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우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샘플링을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와 희망이라는 매개변인을 사용하여 문해교육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주요 변인들 간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희망의 중요한 역할을 규명하였고, 제언으로 희망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실험연구를 통해 희망의 효과를 검정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컨텐츠 등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Mun-Hui Choi. “Learning Participation Experience After Completing the Literacy Education Accreditation Proces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20.

[2]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2022.

[3] Yun-Jeong Choi, “A Biographical Study on the Adult Literacy Learning Process of Individuals Without Form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4] Sun-Jeong Hwa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lliterate Aged Women's Satisfaction on Literacy Education and Ego-Integrity”, Graduate School of Kaya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8.

[5] Erikson, E. H. (1980). On the generational cycle: An addr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1, 213.

[6] Bishop, A. J., Martin, P., Poon, L., & Johnson, M. A. (2011). Explor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s key indica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centenarians: Does cognitive performance matter?. Journal of Aging Research.

[7] Su-In An.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Elderly Literac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Master's thesis.

[8] Jong-Cheon Kim, “A Study on the Life Experiences and Perspective Transformation Through Literacy Learning Participation of Adult Learners”,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4.

[9] Tae-In Ha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Learning Engagement in Literacy Education for Illiterate Learner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10]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 ersonality, 2(2), 257-270.

[11] Nicholson Jr, N. R. (2009).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6), 1342-1352.

[12] Yoo, S. J.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ttitudes and Social Isolation in the Elderly.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12(2), 97-119.

[13] Oh, J. G., & Shin, H. G.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oss in the Elderly Among Christians.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11(2), 163-180.

[14] Jung, H. J., & Yoon, S. H. (2015). Factors Influencing Ego Integrity i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498-507.

[15] Jeung-Suk Lim, "Loneliness of Elderly: Mediating Model of Ego Integrity and Social Support and Difference of Gender",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7.

[16] Hag-Bong Ha, "The Impact of loneliness and Self-integrity among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23.

[17] Hong, H. B. (2005). The Impact of Productive Activity Levels on Successful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9), 203-235.

[18] So-Young Baek. (2021). "Psychological Experience of Sports Talent Donation in Old age and its Attribution to Successful Aging",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 Jeong, Y. H. (2020). The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Relational Aggression in Elderly Individuals Using Institutions: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10(2), 87-110.

[20] Kim, J. W., Ahn, S. I., & Han, J. R. (2023). The Impact of Ego Integrity on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Participants in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Aging Education Research, 9(2), 72-90.

[21] Choo, B. W., & Choi, Y. J. (2018). A Critical Review of School-Based Hope Interventions: Focusing on Snyder's Theory of Hope. Elementary Moral Education, 61, 363-386.

[22]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Norman, S. M., & Combs, G. M. (2006).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ment: toward a micro interven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7(3), 387-393.

[23] Cha, J. E., & Han, D. L. (2014). Hope-Related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Young and Middle-Aged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4), 250-258.

[24] Cho, H. J. (2010). The Impact of Hope on Daily Stress, Psychopathology,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839-852.

[25] Curry, L. A., & Snyder, C. R., "Hope takes the field: Mind matters in athletic performances", San Diego: Academic Press, 2000.

[26] Suk-Gyeong Kim, "The Mediating Effect of Welfare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Incivility and Flourish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Hope", Graduate School of Hanse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22.

[27]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

[28] Lazarus, R. S. (1999). Hope: An emotion and a vital coping resource against despair. Social research, 653-678.

[29]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30] Oh, H. S. (2003). A Study on the Impact of Elderly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9(3), 323-352.

[31] Ji-Hyun Kim, (2016).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Improving the

Ego - Integrity of Depressed Elderly Women Living Alone",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octoral Thesis
[32] Eun-Hee Park, "Mediating Effects of Ego-Integ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of Elders and Successful aging",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6.
[33] Choi, Y. H., Lee, D. K., & Lee, H. K. (2008).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Hope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22(2), 1-16.
[34] Hyun-Joo Kim. (2023).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Successful Aging of Older People's Loneliness", Graduate School of Joongbu University, Doctoral Thesis.

김 성 환 (Seong Hwan Kim)

· 2022년 3월~현재: 국립안동대학교 조교수
· 2023년 7월~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 관심분야: 평생교육, 유아교육
· E-Mail: ksh@anu.ac.kr

김 진 원 (Jin Won Kim)

· 2022년 11월~현재: 평택시청 평생학습센터 근무
· 2023년 3월~현재: 청운대학교 청소년상담교육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평생교육, 문해교육
· E-Mail:gulsem.fish@gmail.com

안 수 인 (Su In An)

· 2010년 12월~현재: 서산시 평생학습과 문해강사(사회복지학 박사)
· 2022년 9월~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 2022년 3월~현재: 혜전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한국어, 문해교육
· E-Mail: asi889@naver.com

이 창 식 (Chang Seek Lee)

· 1993년 2월~현재: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0년 3월~현재: 한서대학교 다문화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평생교육, 느린학습자
· E-Mail: lee1246@hanmail.net